

빌 마운스 박사, 산상 설교, 15강, 마태복음 7:7 이하, 기도의 끈기와 두 가지 연속

© 2024 Bill Mounce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산상 설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빌 마운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마태복음 7:7과 그 이후, 기도의 끈기와 두 가지 연속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 있으며, 이것은 전반부의 끝이며, 이것은 우리가 개와 진주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전 구절과 비슷합니다. 저는 그것을 맥락과 흐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을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맥락에 맞춰서 조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7절, 1에서 6절을 볼 때, 그것은 단순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설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판단하지 않고, 검열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든, 개와 돼지의 분별력, 알다시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티끌과 통나무,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께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힘을 얻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 구절들은 이전의 요구 사항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3절에서 일어날 일이 예수님이 설교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 사업이 설교 전체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당신은 그것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네, 제가 여기에 썼듯이, 당신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읽어 보고, 묻고, 그러면 주어질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면 구하고 받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찾는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열릴 것이다. 이 모든 동사의 동사 형태는 이것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과정, 계속 두드리는 것, 계속 찾는 것, 계속 묻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매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구하세요.

자신의 눈 속의 들보를 볼 수 없습니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명확성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십시오. 죄의 티끌을 언제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신의 문을 두드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무엇을 하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초등학교에 가도록 요청받았는데, 아마 그가 전에 다녔던 것 같고,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교장이 일어나서 윈스턴에 대한 화려한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전쟁 후의 이야기이고,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처칠의 인용문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웨인 그레츠키처럼 많은 것들이 그에게 기인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처칠은 일어나서 “절대, 절대”라고 말했고, 그는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20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앉았습니다. 교장은 당황했고, 아이들은 그의 인내의 메시지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좋은 예시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계속 묻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세요.

기독에 끈기 있게 임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독에 대한 모든 것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정말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해야 할까요? 신은 아십니다. 내가 신을 죽도록 핍박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답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 자주 언급되는 원칙이 정말로 사실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내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은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나는 기독가 신이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일을 하도록 움직인다고 여전히 믿지만, 끈기 있는 기독는 또한 많은 다른 것들을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끈기를 가르치라고 가르치신 비유는, 그것을 시각화하려고 한다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이것은 수치심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면, 그것이 최악이었습니다.

당신이 대중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당신이 대중 앞에서 얼굴을 잃었다면, 그것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다른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방에 앉아 있는 판사가 있고, 과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는 그녀가 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는 명청이입니다.

사실, 저는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의 해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뒷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판사의 주의를 끌려고 하면서 그에게 “정의를 보여주세요! 정의를 보여주세요!”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녀가 한 일은 판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신이나 다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늙은이를 내 등에서 내리기 위해 그녀에게 필요한 것, 그녀가 받을 만한 것을 마침내 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우화에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을 넣고 싶어할 때 제가 찾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우화에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면, 신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그는 우리를 잔소리꾼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녀가 끈기 있게 판사를 움직여 옳은 일을 하게 한 것처럼, 기도에 대한 우리의 끈기에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일을 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계속 묻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고,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중 하나가, 완전히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는 언제 멈추나요? 저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 생활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물었고, 언제 부담을 느끼고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나요? 언제 멈추나요? 제가 받은 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서 욕망을 제거하실 때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중 일부에서 우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시키는 방법의 일부는 원래 기도하게 만든 깊은 확신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기도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아마도 당신과 내가 누구인지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메시지는 끈기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절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는 빵을 구하고 있고, 그들의 빵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원더 브레드가 아니었고, 빵과 돌 사이에 외관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우리는 그에게 돌을 줄 것입니다. 빵처럼 생긴 것을 줄 것이지만, 그것은 그의 이를 부러뜨릴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뱀장어처럼 생긴 생선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스어로 뭐라고 할까? 생선을 뜻하는 표준어야.

하지만 뱀과의 비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만약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물고기, 심지어 뱀장어처럼 생긴 물고기를 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에게 대신 뱀을 줄 것인가? 그를 다치게 할 무언가를. 당신이 악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좋은 선물을 주실지 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갖는 확신은,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반전은, 누가복음의 평행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그는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은 여러분이 이것들이 같은 설교인지 아니면 다른 설교인지 결정하고 싶어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좋은 선물이 성령의 선물일까요? 하지만 요점은, 확실히 마태복음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과 시간에 듣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엄청난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그런 모든 것들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계속 되돌아가는 것 중 하나는 제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으로 전지전능하게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주제를 제기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저 신의 방식과 신의 시간에 응답될 뿐입니다.

미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는 오두막에 부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는 적절한 부두를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부두 제작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바로 Gabby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공군에서 탑건 강사였습니다. 그는 아직 전투 비행을 하던 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2살 때, 저는 신이 저에게 마차를 주실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차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고, 확신했고, 크리스마스가 오고 내 마차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글쎄요,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마차는 없었습니다.

그는 음, 좋아. 그래서 다음 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그는 다시 마차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는 기도한다. 물론 올 거야.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오고 가고, 마차는 없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좋아, 신이시여, 당신은 기회를 잃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말을 지킬 기회를 잃었고,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30살쯤 되었을 때, F-20을 조종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사용하던 기종이었습니다. 안전띠를 매고 마하 2로 비행하며 그저 웃었습니다. 800만 달러짜리 제트기나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조종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매우 선명했습니다. 마차는 어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마하 2로 날지 않았다면, 감사함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언제 기도에 응답할지, 왜 그런 짓을 하기로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팬텀 제트를 타는 것이 제 마차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결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코 알 수 없어요.

코멘트가 있나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이 구절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니까 그는 9절과 그 이하를 맥락과 분리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그는 이 구절을 기도에 대한 끈기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땅의 왕국을
계속 갈구하고, 악마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봅니다. 그는 간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그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과분한 특권을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청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문단 뒤에 11절과 13
절의 성령을 언급하는 평행구절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눈의 끝, 왕국의 끝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9와 그 다음이 아니라 7과 그 다음이잖아요. 7에서
11까지. 글쎄요, 설교의 정점이죠. 설교는 이런 음표로 시작했으니까,
설교를 끝내는 강력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는 기초가 있는 집과 기초가 없는 집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설교 전체와 관련된 행동
촉구입니다. 우리가 묻는 것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독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물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12절이 그의 주장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황금률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너무 일반적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왕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텍스트적 지표가 없다면, 그것은 그것에
반대하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한 말을 알겠죠?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볼 때 거치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좋아요, 그를 그 입장으로 몰고 갈 주장은 무엇일까요?”라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제 성격인 무언가를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Quorals에서 그 토론을 살펴봐야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작가가 무언가를 분명하게 말할 때마다,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근본적입니다.

저자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결론이 그가 생각하는 만큼 명확하다면, 그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so, so 명확하게, so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의 주장의 강점은 12절의 황금률이 어떻게 기도를 뒷받침하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2 절에서, 당신이 얻은 것은 예수께서 설교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맞아요. 제 말은, 7장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도 판자일 거예요.

네, 황금률이 1절에서 5절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황금률이 설교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요점이거든요. 황금률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요약해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볼 때는 여기 있지 않겠지만, 흥미롭군요.

글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장의 힘은 12절에 있습니다. 저는 7절과 11절에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묻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는 그것을 바꿔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조지 래드 밑에서 공부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데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가 공부한 최초의 세계적 학자였는데, 매우 쉽고 빠르게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약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는 “저는 신약 신학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여기가 제가 집중했던 곳이에요.”라고 말하는 데 매우 편안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12절로 가보죠. 모든 것에 있는 황금률로 가보죠.

사실, 알아요? 12절에 문단 나누기가 정말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당신의 성경은 12절에 문단 나누기가 있나요? 누가 그렇다고 했나요? 어떤 번역인가요? ESV. 좋아요, 좋아요. 저는 12절에 문단 나누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것에 적용되든 9절에서 11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휴식을 취하는 게 나에게 더 쉬운 일이 될 거예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알았어요. 아내한테 문자가 왔는데, Kirsten한테 일어난 일 때문에 아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단을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뛰어난 의로움에 대한 이 모든 논의, 경건한 행위, 돈에 대한 전적인 충성에 대한 부름,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는 것, 판사로서의 역할을 맡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 그냥 그렇게 하면, 당신은 율법과 선지자를 모두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요약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2를 7에, 1을 6에 연결시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나도 그들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 구절들 사이에 너무 많은 논의가 있어서 너무 긴밀한 연결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황금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토라와 네비임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지칭하는 표준적인 유대인 방식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5. 17-20)과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고 우리도 우리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아름답게 잘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깊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깊은 순종은 내가 어떤 식으로 대우받고 싶은지,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깊은 확신입니다.

황금률이 도처에 있다는 건 흥미롭죠, 맞죠? 그것은 특별히 기독교적인 진술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랍비인 힐렐은 법을 요약해 달라고 요청받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황금률의 공식입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당신이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기독교를 당신이 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가 당신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기독교 공식화는 긍정적인 행동을 야기합니다.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기에는 너무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긍정적 공식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아마도 Quarrels에서, 가장 큰 계명과 황금률 사이의 잠재적인 중복에 대해 읽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대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흥미로운 계명이며, 제가 가장 큰 계명과 황금률을 어떻게 결합할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저는 Saddleback, Rick Warren의 교회에서 그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의 큰 유리 부분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그들의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것을 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대로, 그것은 유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황금률과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그것들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과 황금률을 연결하는 것에는 뭔가가 있어. 존 파이퍼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사랑할 수 없어.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황금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 속의 신의 사랑은 변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사랑합니다. 알겠어요? 저는 다른 문장마다 '좋아요'라고 말하지 않도록 배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음에 대한 다른 단어가 없어 .

그리고 저는 음. 토스트마스터에 가본 적 있나요? 토스트마스터가 뭔지 알아요? 저는 모든 목사님들께 토스트마스터에 가보라고 진심으로 권합니다. 우리가 와쇼갈로 이사했을 때, 우리는 친구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친구들을 정말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더 많이 말하고 싶어했고, 그게 바로 토스트마스터의 전부입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토스트마스터에 대한 멋진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그들이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의 말에 감각적이지 않고, 비판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적어도 토스트마스터즈의 그녀의 챕터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본 교회 중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할 모든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할 모든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스트마스터즈에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로빈은 말하는 능력을 정말 키웠어요. 그래서 연설을 할 때 문법가들이 당신이 하는 모든 문법적 오류를 체크하죠.

한 사람은 당신이 um이라고 말하는 횟수만 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um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화를 낼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의 멘辱입니다.

하지만 저는 로빈이 대중 연설가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저는 정말,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비기독교인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를 정리하는 능력을 연마하는 방법으로, 토스트마스터즈가 훌륭하다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로빈만큼 좋은 장을 갖기를 바라며, 그것이 언젠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제 다른 말의 멘辱입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7:13에 옵니다. 여기서 요점은 예수께서 한 가지 근본적인 요점을 강조하고 싶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결정을 내려야 하고, 행동을 취해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일련의 두 가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기초 위에 있는 두 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지 또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의 전체 시리즈이고, 이 중 각각은 약간 다른 요점을 제기하지만, 모두 같은 기본적인 요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개의 문과 길의 은유로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것은 강력하고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은 문과 길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론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어 멸망으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만, NIV에는 끔찍하고 끔찍한 오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작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NIV는 영어가 반복되는 경향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영어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의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문이 좁고, 그 다음에는 문이 작다는 것을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그게 다르니? 그리고 언젠가는 작다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내기할게. 그냥 내기할 뿐이야. 하지만 그 문은 좁고, 어렵고, 그래야 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렵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해 설교할 때, 저는 보통 ESV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ESV에는 이 모든 단어가 옳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 그림은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좋아요, 제가 반복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이미지이고, 예수께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눈을 감고 두 개의 이미지를 얻는 것입니다.

글쎄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에는 크고 거대한 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범퍼에 센서가 있어서 최고 속도로 통과하는 이 티켓 부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활짝 열린 문들뿐이에요. 그 반대편에는 6차선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쉬운 길이고, 여행하기 쉬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의 언어로, 당신은 당신의 영적 타락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당신의 죄를 애도할 필요가 없고, 신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고, 마음의 순수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하기 쉬운 길이죠? 이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가기로 선택했고, 그들은 그 길에 많은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넓은 멸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주제가는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은유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옛날 영어로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제가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의 주제가는 인빅터스라고 생각합니다. 기둥에서 기둥까지 구덩이처럼 검은 나를 덮은 밤에서, 나는 정복할 수 없는 내 영혼을 위해 어떤 신이든 감사를 표합니다. 이 시를 아십니까? 처참한 상황의 곤경 속에서도 나는 울찔하거나 큰 소리로 울지 않았습니다.

곧봉 아래에서 기회는, 내 머리는 피투성이이지만 굽지 않았다. 다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잊었다. 어쨌든, 마지막 대사는, 문이 얼마나 곧은지는 중요 하지 않다, 얼마나 처벌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역할에 들어가면, 말할 것이다.

얼마나 처벌로 가득 차 있는지,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게 인빅터스다. 내가 그것을 인용할 때, 보통 나는 그것을 통과한다, 그것은 강력한 노래인데, 왜냐하면 세상이 그래,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펠 클러치는 상관없어. 난 그걸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 어쨌든, 인빅터스를 거치고, 세상이 그래, 그게 정확히 맞아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길로 가는 주제가 되는 거야.

저는 그 그림을 정말 망쳤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반대편으로, 저는 제 생각에, 그것이 정말 평범한 길에서 벗어난, 작은 문, 아주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이지만,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지나쳐 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들은 고속도로를 평평하게 만들지 않았고, 산을 평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아래로, 돌고, 관통합니다.

힘든 길이며, 가끔씩 그 길을 걷는 몇몇 여행자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는, 내 손에 든 것은 없지만,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완전히 다른 노래입니다. 예수께서 그 그림을 그리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나이 많은 설교자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설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두 개의 표지판을 두 가지 행복의 첫 번째라고 언급했습니다. 흥미로운 그림이네요.

한 글은 영의 가난에 대한 것이고, 다른 글은 애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예수님이 맞죠? 저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 매우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추론해 보면, 이 게이트를 개찰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갈 수 있고,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자립심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존심을 뒤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문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요, 맞죠? 그 문은 영적 타락과 우리 죄에 대한 애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화 *For Pete's Sake*를 본 적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었죠. 그때는 영화도 있었어요. 물론, 당신은 영화관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교회에서 보여졌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괜찮았어. 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어쨌든 피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내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화에서 훌륭한 대사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가족 계획과 비슷해요. 엄마와 아빠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제 아내는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가족 플랜에 가입할 겁니다. 그리고 답은, 아니요, 문은 좁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가족 계획은 없습니다. 반대편의 길은 제자도의 길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매우 강력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삶은 문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삶은 길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너무 멀리 밀어붙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모두가 아니다. 하지만 교회는 문이 필요하고 길은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저는 그것이 미국 교회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은 필요하지만 길은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삼촌 조지는 제 아빠 바비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땅에서는 앞자리에 앉고 하늘에서는 뒷자리에 앉을 거라고요.

그리고 답은, 조지 삼촌, 천국에는 뒷좌석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지옥에서 무료로 나갈 수 있는 카드를 받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끔찍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단지 한 번 사용된 것을 죄의 변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여기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설교자들이 이 교회의 규칙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명만 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상관없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저는 믿음의 인내를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내를 교리화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방식, 베드로전서 1장,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계속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끈기 있고, 성령은 우리가 받을 구원의 선급금, 절대적인 보장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궁극적으로 좋은 웨슬리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그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에베소서 1장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서 우리는 감히 그것들을 너무 멀리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유대교의 법률주의와 로마 가톨릭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칭의,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과 성화, 즉 우리가 경험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확고히 구별해야 했던 역사적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 가지가 너무 멀리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죄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졸업식에서 동료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과 제가 이것을 공유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을 통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잠재의식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저, 좋아, 내가 왜 이걸 할지 세 가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우리를 밀고 당기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경험 때문에 세 번째 해석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우리를 밀고 당기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당신의 아버지가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이고, 당신의 아내가 성적으로 학대하는 아버지, 집사, 장로, 삼촌을 가졌다면, 대개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끔찍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말은, 그들은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제어하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훌륭한 아빠,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기도문에 대해 읽을 때, 그렇죠, 쉬운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모든 목사의 이미지가 문과 길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명령은 전도와 제자 양성입니다. 대명령이 전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대명령에는 단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를 만듭니다. 세례는 선거입니다. 선거.

좋아하세요? 세례는 개종이며, 가르침은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대명령 교회는 1마일 넓이와 1마일 깊이가 있습니다. 1마일 넓이와 1인치 깊이의 교회에 대한 성경적 명령은 없습니다.

대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문이 있고, 길이 있고, 삶은 길의 끝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삶을 바꾸세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그것이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기 부여 이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사람들을 문으로 인도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가도록 돋는 성령과 함께 우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 다 필수적이고, 둘 다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나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나는 감각적이거나 판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세 가지 확신 테스트 중, 그리고 세 가지를 모두 합친 것인데, 변화된 삶에서 오는 확신은 핵심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 곧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강력한 이미지이고, 제가 깊이 투자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1년쯤 지나면 책을 집어서 그 책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작업 중인 그리스어 책을 끝내고 이 책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13장 중 10장은 다 썼어요.

그리고 저는 영적으로 신에 대해 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옆에 두고 지금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이것이 이미지, 문, 그리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뒤이어 말씀하신 것은 길을 따라 두 가지 위험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길을 걷는 동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당신에게 오지만, 속으로는 사나운 늑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늑대의 탈을 쓴 양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솝 우화입니다. 그것은 매우, 매우 오래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솝 우화의 끝에서 양털을 쓴 늑대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늑대를 죽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0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들, 양털을 쓴 늑대, 가능하다면 택함받은 자들의 것을 빼앗을 사람들에 대해, 목자의 역할은 늑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 버리세요.

그래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당신에게 들어오지만, 속으로는 사나운 늑대입니다. 그리고 그는 추론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당신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나요? 물론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 번, 비유를 강요하지 마세요, 맞죠?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정말 좋은 오렌지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나쁜 오렌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비유를 강요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져 불에 던져지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길을 따라 걸으면 거짓 교사들을 만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줄 사이를 읽어야 하거나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들은 문이 좀지 않다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요.

답변 좀 주세요. 맞죠? 그건 거짓 교사일 겁니다. 길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요, 선택 사항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모든 선지자에게 선택 사항입니다.

신학적 논쟁이 있다는 건 알아요, blah, blah, blah. 그냥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우리 교회에 옷을 입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다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지만, 양들의 천적처럼 보여요.

흥미롭네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1절은 겁쟁이들이 몰래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4절에서는 그들 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양의 천적으로 보입니다. 흥미롭습니다. 베드로후서 2:1에서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겁쟁이들이 몰래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열매를 정말 주의 깊게 보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발, 이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의 반대가 강해서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본적으로 디모데전서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일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험 중 첫 번째는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것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맞죠? 제 말은, 이것들은 무서운 단어라는 겁니다. 제 딸이 처음 이 단어를 읽었을 때, 그녀는 청소년 모임이나 다른 곳에서 집에 돌아왔고, 그저 완전히 무서웠던 걸 기억합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빠, 이게 나라면 어떡하지?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생명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20으로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나요? 깊은 순종으로. 여러분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야 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사람들뿐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가 한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맞죠?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나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나요? 좋아요, 이들은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무서운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단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노라. 너희도 이해할 수 있게 말하게 하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라, 악한 자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우리가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깊은 순종은 아니다. 깊은 순종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깊은 순종은 영적 타락, 애도,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해 온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로역정을 읽어보셨나요? 천로역정?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성경 다음으로 출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스펄전은 104번이나 읽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때쯤에는 알아냈을 겁니다. 현대화한 것도 있지만, 현대화한 것은 보통 번역이 넣은 모든 구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중 일부는 꽤 큰 덩어리를 건너뛰기 때문에, 저는 오래된 것을 얻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따라가기 정말 어렵지만, 정말 파헤쳐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Hope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인물인가요? 희망인가요? 아니, 너무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어쨌든, 이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우화입니다. 그 남자는 집을 떠나 문을 통과해 천상의 도시로 가는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여정의 중간에 그는 "당신의 증명서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는 캐릭터를 만납니다. 증명서는 크리스천이 문을 통과할 때 받는 것입니다. 캐릭터는 "음, 저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글쎄, 천상의 도시에 들어가려면 꼭 하나 있어야 해. 아니, 아니, 아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갈게. 잘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크리스찬은 아니, 문에서 받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그들은 크리스찬이 이 사람과 불편해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크리스찬의 삶의 끝에 도달하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름을 기억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는 친구와 함께 있다. 그는 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데, 이는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정말 멋진 장면이 있어요. 그는 그저 무서워해요. 그는 죽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것은 신앙의 위기이고, 그의 친구는 그와 함께 걷는다. 마침내, 크리스찬은 강을 건너고, 그는 반대편에 도착하고, 그를 기다리는 파티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천상의 도시로 데려갔고, 저는 종종 그것을 오즈의 마법사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이 작은 문이 열리고, 문지기가 가서, 당신의 증명서는 어디 있니?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그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그들은 들어가고, 파티는 천상의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그것은 죽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그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에요. 이야기의 끝은 크리스챤이 이전에 만난 다른 캐릭터가 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반대편에는 그를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천상의 도시 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심술궂은 늙은 문지기가, 적어도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증명서는 어디 있니?”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명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문을 쾅 닫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천상의 도시 바로 옆에 있고,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악마들이 다가와서 이 인물을 붙잡고 끌고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을 지르고 지옥으로 발로 차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번역, 저는 번역의 다른 결말을 봤지만, 제가 읽은 버전은 이겁니다. 맨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 바로 옆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무지. 고맙습니다. 희망보다 더 말이 되죠.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이 있다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종 경험, 산 정상과 같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좋은 것들이지만, 또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역이 은유를 확장하는 방식, 만약 당신이 문을 돌아가서 길을 여행하려고 한다면, 또는 만약 당신이 길을 여행하다가 길에서 떨어진다면, 왜냐하면 당신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개혁된 당신은 그것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을 통과하는 것의 조합이고, 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이거나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이거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좁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렵고, 그리스도 단어는 박해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제자도는 박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망의 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의 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빠지는 첫 번째 구덩이인데, 절망의 구덩이라고 불립니다. 네, 정말, 아시다시피,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러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에게 종종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들은 낙담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할 때 *they*로 바꾼 걸 들었어? 응,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지나가고 종종 낙담하고, 보다시피, 너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다. 그들은 늪에 빠진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늪의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다시 길로 돌아가서 나아가도록 돋기 위해 우리 삶에 등장인물을 보내십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깊은 순종이 반드시 케이블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많은 추종자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다른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기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죄가 있을 때 놀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노트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제 노트가 제게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잠깐만요.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길을 걷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길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퇴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왕국의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걷는 동안 많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반면에 왕국의 좁은 길을 걸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왕국의 좁은 길을 걸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왕국의 좁은 길을 걸었고, 그들은 왕국의 좁은 길을 걸었고, 그들이 대우받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설교에서 다른 모든 것을 행한 사람들이지, 이러한 놀라운 업적만 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죠. 두 집에 대한 유명한 은유죠. 그러니 제 말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은...
알겠어요,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냥 들을 수는 없어요. 직접 해야 해요.

내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시내가 흐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으나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 라카 27인가요? 아, 모레이입니다. 그는 세 번째 단어인 모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개울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고, 그 집은 큰 소리로 무너졌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몇 년 전에 어떤

목사가 이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조금 과장한 것이지만, 그의 요점은 두 집이 똑같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가정해 봅시다.

이 두 집은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기초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두 집이 있어요.

같은 것 같지만, 인생의 도전이 닥쳐야 그것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초이든, 그저 듣고 행하지 않는 기초이든, 모두 기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견뎌낼 사람입니다. 매우, 매우 강력한.. .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YouTube인 것 같습니다.

존 파이퍼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운전자에게 딸을 잃은 남자와의 인터뷰입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융의 말로 외쳤습니다.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주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그리고 존이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당신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배워야 합니다.

집을 지어야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폭풍이 올 때, 그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고, 길을 걷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충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설교의 모든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집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전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집이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집이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울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길이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폭풍에 대비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닥쳐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 지진, 집들이 나란히 서 있고, 어떤 집은 서 있고 어떤 집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유사점을 생각해 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구원만을 설교하는 교회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누구도 문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다가올 것입니다. Barna에 따르면, 교회 개종 경험을 거친 사람의 93%가 신앙에서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93%.

그리고 그건 10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저는 바나에 살았어요.
저는 숫자를 좋아했어요.

도움이 되었어요... 와, 정말요? 93%. 개종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93%는 자신이 진짜 기독교인이었거나 아니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경험을 했고, 믿음에서 떠났고,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폭풍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16을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국민에게 고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건 당신일 겁니다. 28절, 저는... 저는 이 말씀의 실제 예수에 대한 제 의견을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랍비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랍비 누구누구는 저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우 비교적 단순한 스타일로, 직설적으로, 그 비유들을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지 않았고, 설교자의 목소리로 바꾸지 않았고, 강력한 예를 사용하지 않았고, 농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스타일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부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트는 예수의 주장의 엄청난 자기중심성을 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저 엄청난 자기중심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이것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문제이며, 그분은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만의 권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내 권위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들었지만, 나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할 권리. 구약을 재해석하거나 올바르게 해석할 권리. 그것이 예수가 가진 권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행복 교회가 되려면, 아마도 더 작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도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전쟁 시기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기 힘든 길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산상 설교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탄과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악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은 친절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안주시키고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당신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교구민 중 한 명이 왕좌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라, 불의를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 사람이 돌아서서 당신을 바라보며,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하라고 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세요. 저는 그것이 당신에게 진실을 전파하고, 복음 전체를 전파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쓰레기의 변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열정을 줄 수 있는 동기 부여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쉽고 즐겁고 한 단계의 본당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파할 힘을 줍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교회를 원하는지 결정하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어떤 종류의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입니까?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다음 주에 형제가
돌아와서 제 신앙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설교자입니까?

글쎄요, 좋아요. 당신은 당신의 형제 로카를 많이 부르나요? 저는 그저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산상 설교와 같은 목사가 되어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부름받은
대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산상 설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빌 마운스 박사의 글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마태복음 7:7과 그 이후, 기도의 끈기와 두 가지
시리즈입니다.